

우리도 **기후 변화** 함께 해야 할 때



1 아동의 권리를 담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들어보았나요? 1P

2 제21회 대한민국아동총회와 **주제 및 슬로건**을 알아보아요! 2P

3 조별 회의를 위한 **키워드**(구체적인 세부 주제)를 소개해요! 4P

4 기후 변화와 아동의 권리를 담은 **제26호 일반논평**을 알아보아요! 14P

1 아동의 권리를 담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들어보았나요?

여러분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담은 전 세계의 약속입니다.

1.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만 18세 미만 아동이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 약속입니다.

또한 전 세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최초의 국제협약**입니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가입국 모두의 동의로 채택되었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가 약속한 국제법**이기도 합니다.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총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1~42조는 **아동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43~54조는 **정부가 실천해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또 이해를 돕기 위해 협약의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할 4대 원칙과 기본적인 4대 권리로 설명되곤 합니다. 물론 모든 권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권리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모두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3. 4가지 일반원칙과 기본권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과 기본권으로 설명합니다.

1) 일반원칙(4대 원칙)

• **비차별** 모든 아동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항상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 **아동 최선의 이익**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을 결정하는 과정에선 아동의 입장과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 **생명,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동의 생명은 다른 누구의 것도 될 수 없고, 발달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아동 의견 존중**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을 갖고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그 의견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2) 기본권(4대 권리)

생존권 사람으로서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보호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아동이 한 명의 개인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보장받을 권리

참여권 자신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2 제21회 대한민국아동총회와 주제 및 슬로건을 알아보아요!

제21회 대한민국아동총회의 주제는 ‘기후 변화와 아동의 위기 의식’이에요. 그리고 슬로건은 “더워지는 지구 멀어지는 아동의 일상,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나요?”랍니다.

● 제21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주제와 슬로건

주제 기후 변화와 아동의 위기 의식

슬로건 더워지는 지구 멀어지는 아동의 일상,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나요?

“

제21회 대한민국아동총회의 주제인 ‘기후 변화와 아동의 위기 의식’이 낯선가요?

기후 변화란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고,
아동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위기감을 느끼는지도 궁금하지요?

”



■ 기후 변화는 무엇이고, 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우선 기후 변화에 대해 알기 전에 기후란 무엇일까요?

기후란 사전적으로 ‘일정한 지역에서 여러 해에 걸쳐 나타난 기온, 비, 눈, 바람 따위의 평균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후 변화란 일정한 지역에서 여러 해 동안 나타난 날씨, 기온 등의 평균 상태가 서서히 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후 변화는 흔히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 현상을 말합니다.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인데 공기 중의 온실가스와 태양으로부터의 열이 공기에 계속 머물면서 기온이 올라갑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과도한 자동차의 사용, 산업활동, 산림 파괴, 무분별한 토지개발과 같은 인간의 활동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후 변화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후 변화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는 우리나라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기후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요.

두 번째, 기후 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에요. 지난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195개 나라가 지구의 평균기온을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어요. 2°C만 올라가도 생태계에 큰 위험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23년에 이미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은 1.45°C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기후 변화는 극단적 날씨(폭염, 폭우, 강설 등)로 인한 인명피해, 소멸 위험과 바다의 해수면이 상승해 해안지역의 침수 위험을 줍니다. 실제로 2022년 전체 난민의 53%가 기후로 인해 생긴 난민이라

고 합니다. 그리고 생태계의 먹이 그물까지 위협해 생태계 안정을 파괴하므로 인류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체계 붕괴, 새로운 바이러스의 등장과 같은 문제로 확장될 수 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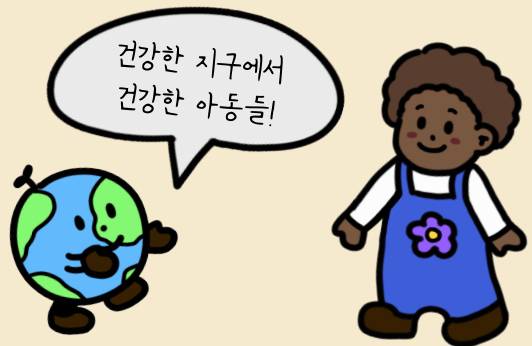
■ 기후 변화와 아동의 권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기후 변화의 위협은 아동에게 더욱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밝히고 있는 생존과 발달, 보호, 그리고 참여 등 아동의 4대 기본권 모두를 위협합니다. 주거환경이 파괴되고 극단적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합니다. 보호권과 발달권 역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 기후 변화로 인해 농업 생산량이 감소한다면 식량난이 생겨나고, 아동의 영양 섭취에도 문제가 생겨요. 또 안전한 곳에서 살아야 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이 위험에 쉽게 노출되며, 기상 재해 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미 지구촌에서는 수많은 아동이 기후 변화로 기아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유엔과 세계 각국에서는 기후 변화가 이미 인권, 특히 아동의 인권의 문제라며 이에 대한 대책에 전 세계가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 기후 변화에 더 취약한 아동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모습은 찾기 힘들어요.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아동이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동의 안전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의 노력과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요. 먼저 사회적 차원의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사회적 노력으로는 기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법률 제·개정, 기후 변화 캠페인 개최,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교육 시행 등이 있어요. 이어서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적 노력으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재활용품 사용하기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의논하며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노력 이랍니다.



■ 생각해 보아요 1



①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후 변화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

.....

.....

② 여러분은 기후 변화와 아동의 인권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 위에 소개된방법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

.....

.....

3 조별 회의를 위한 키워드(구체적인 세부 주제)를 소개해요!

대한민국아동총회 참여자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누구나 소중하게 여기는 순서가 바로 결의문 채택을 위한 조별 논의 시간이지요. 그리고 조별 회의 때의 실제 논의 주제가 되는 세부 주제가 바로 키워드입니다.

대한민국아동총회 의장단(19, 20기)은 지난해부터 논의를 통해 아동총회의 주제와 슬로건을 정한 뒤, 지역대회와 전국대회 참여자 여러분이 문제와 대안을 찾는 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적인 세부 주제(키워드)를 제시하기로 하였어요. 올해는 5개의 키워드를 정했어요. 모든 키워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상의 아동의 권리 중 기후 변화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의장단은 기후 변화로 아동이 건강을 위협받는 것은 권리를 침해받는 것이며, 아동은 기후 변화와 관련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받음으로써 이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스스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어요. 유엔 역시 이러한 의장단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참, 아래 제시된 5개의 키워드를 꼼꼼히 살펴보고, 어떤 키워드가 가장 인상 깊었는지 얘기해 봐요! 먼저 몇 개의 키워드를 선택한 뒤, 다른 조원들과 이야기 나눠보면서 하나의 키워드를 골라 보세요. 또 지역대회에서는 아래 제시하는 키워드(세부 주제) 외에 여러분이 찾은 다른 키워드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 제21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주제 및 슬로건

기후 변화와 아동의 위기 인식 더워지는 지구 멀어지는 아동의 일상,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나요?

● 제21회 대한민국아동총회 키워드 (구체적인 세부 주제)

- 기후 변화 속 도움이 더욱 필요한 아동
- 기후 변화와 아동의 건강
- 기후 변화와 아동의 교육환경
- 기후 변화와 아동의 지식교육
- 기후 변화와 아동의 참여



여기에 있는 관련 조항을
함께 살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거야!



기후 변화 속 도움이 더욱 필요한 아동

기후 위기 대처 능력의 격차에 따라 취약계층아동 등은 자연재해에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도움이 더욱 필요한 아동을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아동권리협약 관련 조항



관련 기사 (제목 및 내용 요약)

기후 재난에 취약한 감각 장애인들

| 프레스시안 (2023.12.21.)

-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은 모두에게 공평한 위험이 되지 않는다. 재난은 '발생 이전→발생당시→발생이후'의 세 단계 속에서 사회 계층이나 집단에 따라 불균등한 영향을 끼친다. 그동안 기후 재난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진전되어 왔지만, 장애인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뿐 아니라 성별, 연령, 인종, 소득과 자산 등에 따라 기후 재난으로 부터 복합적이고 중복되는 취약성을 가진다는 사실이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 최근 기후 변화의 맥락에서 장애인의 경험을 연구한 학술 논문 21편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장애 여성일수록 대피소에서 지내는 동안 성폭력 피해를 경험할 위험이 더 컸고, 허리케인이 지나간 이후 장애 아동 중 12%가 '홀리스'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이후 장애인일 수록 감염병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의 위험을 더 크게 경험했다.

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22021505546165

저소득층 아동 76% “기후위기로 불안감 느낀다”

| 한국일보 (2024.03.12.)

- 환경재단에서 저소득층 가구 10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가 기후위기로 불안감을 느끼고, 74%가 주거환경의 악화를 체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폭염과 한파, 해충 증가, 폭우로 인한 침수와 곰팡이 등의 변화를 겪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환경재단은 기후재난에 직면한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31211130001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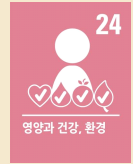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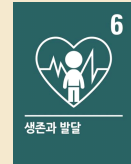
다양한 아동들의 관점에서
아동들이 마주한 상황과
기후위기에 대해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기후 변화와 아동의 건강

기후 변화의 악영향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환경성 질병·장애, 호흡기 질환 발생 비율과 전염병 노출 위험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외부활동 제한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발달 저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부터 아동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아동권리협약 관련 조항



[주요 사례]

- 기후 변화로 인한 질병의 증가 (아토피, 천식, 비염 등)
- 식량 위기로 인한 아동의 영양문제 발생
- 실외활동 제한으로 인한 신체발달 및 사회발달 저해
- 기후 위기의 악영향으로 인한 아동의 불안, 트라우마, 무력감 등 정신건강 문제 발생



관련 기사 (제목 및 내용 요약)

“굶고 병들고…기후 위기에 어린이 성장권 침해당해”

| 연합뉴스 (2022.10.26.)

- 유니세프 보고서 ‘그들의 남은 생에서 가장 추운 해’에 따르면, 세계 아동 4명 중 1명인 5억 5,900만 명의 아동이 매년 최소 4~5차례 위험한 폭염에 노출됐다.
- 화석 연료 사용 증가 등으로 지구 기온이 2.4도 상승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2050년 세계 어린이의 약 94%가 최소 4.7일간 계속되는 폭염에 시달려 수억 명의 어린이가 죽음에 이르거나 질병, 굶주림, 강제 이동 등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 어린이와 유아는 체온 관리 능력이 떨어져 폭염에 더 취약하며, 천식과 심혈관계 질환 등 수많은 질병에 걸리고 심한 경우 죽음에 이를 수 있다. 폭염으로 가뭄이 심해지면 식량과 식수가 부족한 지역의 어린이는 발육에 문제가 생기며, 극단적 기후 변화에 노출된 아동은 집중력과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www.yna.co.kr/view/AKR20221026131600009

빨라지는 기후변화 건강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 메디칼업저버 (2023.07.18.)

- 기후 변화가 직간접적으로 전 세계 인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폭염으로 인한 체온 상승,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 악화, 홍수로 인한 신체 상해, 영양실조 및 정신건강 문제 발생, 공중위생 위협 등이 있다. 간접적인 영향으로는, 모기 등 병원체 매개 질환(뇌염, 말라리아, 뎅기열 등) 발생 증가, 꽃가루 노출 증가로 인한 알레르기 질환 증가, 수인성 감염병 발생 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의학계에서도 기후 변화가 건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의료 전문가들이 새로운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기후위기 원인을 제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794

■ 기후 변화와 아동의 건강

■ 관련 기사 (제목 및 내용 요약)

■ 기후 변화로 인한 질병의 88%, 아동에게 발생

| YTN사이언스 유튜브 (2021.09.27.)

- 캐나다 메모리얼대학연구팀의 "기후 변화와 세계 아동의 건강(climate change and global child health)"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인한 질병의 88%가 5세미만 아동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기후 변화로 수인성 박테리아가 증가하고 농작물 흉작과 가뭄 및 식수 부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www.youtube.com/watch?v=hNZvPI0a_FM

■ 세계 어린이 10억 명, 기후 변화로 극한 위험에 내몰렸다

| 한겨레 (2021.08.23.)

- 유니세프 '기후 위기는 아동 권리의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아동 22억 명 중 절반 가량인 10억 명이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 측면에서 극도로 위험성이 높은 국가에 살고 있다.
- 위험 요인별로는, 전 세계 아동 20억 명은 대기오염에, 9억 2000만 명은 물 부족에, 8억 2000만 명은 폭염에 노출돼 있다. 또, 3억 3000만 명은 하천 홍수, 2억 4000만 명은 해안 범람, 6억 명은 말라리아나 뎅기열 같은 질병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08783.html

■ 관련 논문 (제목 및 내용 요약)

■ 기후 변화가 감염병 유행에 미치는 영향 (김종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no.320 (2023)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간 협의체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이 인간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엘니뇨/라니냐 현상 (열대 태평양에서 발생) 등으로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 뎅기열과 같은 환자 발생, 바이러스성/세균성 감염 질병 발생이 증가했다. 또한, 폭우로 인하여 비브리오패혈증 등의 발생이 증가하였다.

www.kihasa.re.kr/publish/regular/hsw/view?seq=55462&volume=55458

나와 너희가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

기후 변화와 아동의 교육 환경

■ 폭염/폭설로 인한 등교 중지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 홍수/태풍 등으로 인해 교육 환경이 파괴되는 등 자연 재해로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대기오염 등에 의해 야외수업이 어려워 지는 것과 같이 교육환경의 반경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 위기로 인해 위태로워지는 아동의 교육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 학교 급식 잔반처리 문제, 탄소 배출량 증가 등 교육환경에서 기후 위기를 악화시키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육환경 내에서도 아동들이 기후 위기를 악화시키지 않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아동권리협약 관련 조항



관련 기사 (제목 및 내용 요약)

‘미세먼지 샤워’ 피해 실내 체육수업…교육 현장도 비상

| 연합뉴스 (2019.03.10.)

•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로 대다수의 학교는 체육수업을 실내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이론 수업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내 행사는 체육관에서 진행하고, 현장 체험 학습은 박물관이나 직업체험관을 견학하는 등 실내에서 가능한 활동 위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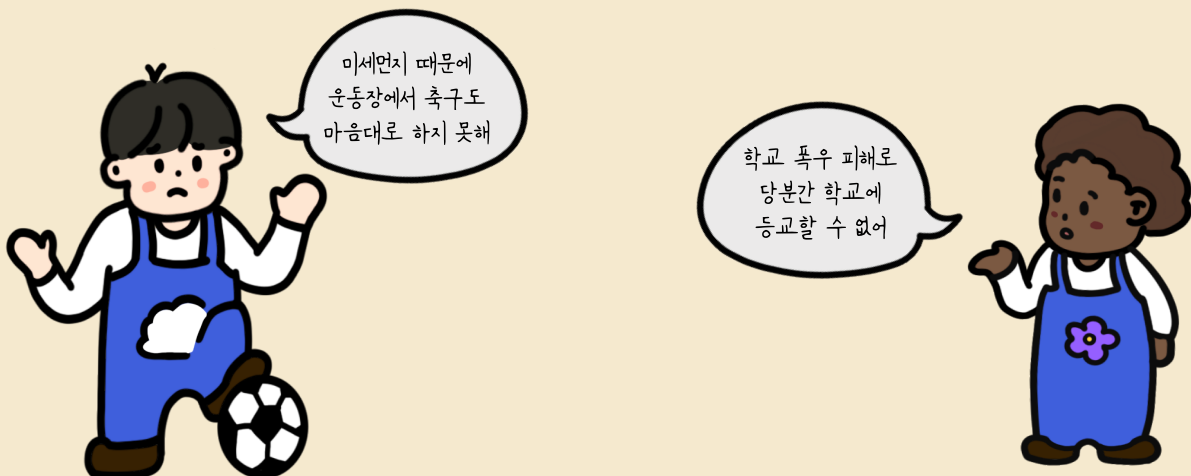
www.yna.co.kr/view/AKR20190305154400004?input=1195m

산사태 노출 산간학교가 36%…예방 서둘러야

| 전북일보 (2023.10.15.)

• 집중 호우·태풍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북 지역 초·중·고 3곳 중 1곳은 산사태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8월 전북 지역에 최대 52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면서 학교 46곳이 비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단축수업(13개교), 등·하교 시간 조정(9개교), 조기 방학(1개교), 현장학습 취소(1개교) 등으로 학사일정이 조정되었다.

www.jjan.kr/article/20231013580035



기후 변화와 아동의 교육 환경

■ 관련 기사 (제목 및 내용 요약)

■ 3년간 146억 쏟아부은 서울 학교 잔반처리비

| 대한급식신문 (2023.11.21.)

- 서울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학교 급식 잔반처리비용으로 2020년부터 지난 3년간 약 146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며, 이 비용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내 음식물쓰레기 연간 배출량이 522만t으로 이 중 20%만 줄이면 온실가스 배출량 177만t 가량을 줄일 수 있다.

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15

■ “학교 탄소배출 배우고 줄이기 나선 학생들…세계도 놀라”

| 서울신문 (2024.01.09.)

- 서울시교육청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학교 전체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삼성전자가 내보내는 양의 40%에 육박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가스·전기·수도는 물론 급식에 쓰이는 식자재까지 조사해 시기별, 영역별로 학교들이 배출한 탄소량을 계산하여 총 10곳의 ‘탄소제로 실천 선도학교’를 운영하였다.
- 서울시교육청의 ‘탄소제로 실천 선도학교’인 10곳 중 한 곳인 정수초 5학년에서는 학교별 탄소 배출량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학생들이 탄소 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글쓰기와 발표 등의 수업을 진행했다. 주 1~2회 꾸준히 수업을 소화한 아이들은 겨울엔 난방을 줄이려 노력하고, 대기 전력을 아껴야 한다며 선풍기 콘센트를 직접 뽑았다. 김 교사는 “여름 실내온도 26도를 학생들이 앞장서서 지켰다”며 “생활 속에 숨어 있는 탄소배출을 찾아내는 ‘탄소 문해력’이 아이들에게 생겼다”고 말했다.

www.seoul.co.kr/news/2024/01/10/20240110020003



기후 변화와 아동의 지식 교육

아동은 빠르고 정확하게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후 위기 정보에 대한 아동의 접근성은 낮은 편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기회도 적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 면에서 아동이 수동적 주체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교육 내용도 소극적인 활동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후 위기에 대한 아동의 지식 교육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동권리협약 관련 조항



관련 기사 (제목 및 내용 요약)

세계 최초 기후 변화 교육 '의무화'

| 사이언스타임스 (2019.11.23.)

- 세계 최초로 이탈리아 공립학교에서 기후 변화(climate change) 교육이 실시된다. 12일 인터넷 포럼 '빅 싱크(Big Think)'에 따르면 이탈리아 교육부는 내년 9월부터 공립학교 교과과정에 33시간의 기후 변화 관련 수업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로렌조 피오라몬티(Lorenzo Fioramonti) 이탈리아 교육부 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후 변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교과과정을 통해 국민들 사이에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미국 교육부는 환경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를 위해 표준 교과 과정인 NGSS(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을 통해 커리큘럼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산불 등으로 심각한 환경재난에 처해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환경교육이 포함된 교육 과정인 'California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를 정식 커리큘럼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buly.kr/H6fMfjy

경기, 초등학교 3·4학년용 '기후 변화 교과서' 만든다

| 인천일보 (2020.07.06.)

- 경기도내 민관에서 처음으로 기후 변화 교과서 제작에 나섰다. 이르면 내년부터 도내 초등학교에서 기후 변화 교육이 이뤄질 전망이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용 교과서'도 추진하는 등 점차 범위를 넓힐 복안이다.
- 이탈리아 정부는 올해부터 해마다 33시간 기후 변화교육을, 영국 일부 주는 모든 학교에 기후교육 교사 배치를 의무화했다. 미국은 기후 변화교육법을 발의했다.

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7788



지구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수록
기후 변화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행동할 수 있을거야!



■ 기후 변화와 아동의 지식 교육

■ 관련 기사 (제목 및 내용 요약)

■ 도, 24일까지 '경기도형 탄소중립학교' 참여 초·중·고 모집 | 경기도뉴스포털 (2023.02.01.)

•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경기도형 탄소중립학교' 운영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에서는 도내 초·중·고등학교 40개교를 모집하여 탄소중립 교육부터 실천까지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중립 기초교육과 심화교육 실시, 환경동아리 활동비 지원, 기후변화 교과서 및 교육 자료 보급,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등이 있다.

buly.kr/CLx1mPR

■ “아동·청소년에게 기후변화 교육 제공해야” | 내일신문 (2023.04.25.)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싶지만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후 위기 교육은 일회성에 그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연구 결과, 아동·청소년 대부분은 기후 위기의 영향, 개인의 실천 방법, 원인 등에 대한 교육을 더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반영한 기후 위기 대응 교육 의무화와 자율활동 및 교과 연계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www.naeil.com/news/read/458699

■ 코앞에 닥친 기후위기, 몸으로 배우는 환경교육 절실 | 충청투데이 (2022.04.22.)

• 학교 현장에서 환경교육이 강화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교육 마련이 과제로 제시된다. 정부와 교육청은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단계별 환경교육을 계획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기후위기 대응 교육 참여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교육이 선택과목으로 운영되면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접하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되었다. 이에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은 기존의 지식 전달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0709



기후 변화와 아동의 참여

현재 기후 위기 법률 및 법제가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아동과 관련된 법률을 찾기 어려웠고 아동을 중심으로 한 기후 위기 정책 개발부분에서는 정작 중요한 아동의 의견을 낼 기회가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이 기후 변화 대책을 내세웠을 때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창구와 체계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화에까지 이를 수 있는 아동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동권리협약 관련 조항



[주요 사례]

- 아동 의견 반영 미흡
- 기후 정책 및 법안 등에 있어서 아동 입장 고려 부족
-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아동중심 정책 개발에 아동의 참여기회 부족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더 빠른 변화를 이끌 수 있어



관련 기사 (제목 및 내용 요약)

기후 위기 대응 위해 아동의 목소리에 집중해 정책과 제도 변화 이끌어

| 중앙일보 (2024.01.24.)

- 지난해 굿네이버스의 '아동·청소년 기후 위기 대응 활동 실태 조사'에서 한국 아동·청소년의 51.7%가 기후 위기가 아동 권리를 침해한다고 응답했고, 89.4%는 기후 위기 대응 활동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굿네이버스 관계자는 “하지만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거나 아동에게 기후 위기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환경보호 실천 수준의 교육 정도로 학습이 이뤄져 아동이 목소리를 내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www.joongang.co.kr/article/25224142#home

국민 10명 중 8명 “기후 위기 대응에 아동·청소년 참여해야”

| 서울신문 (2022.09.26.)

-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달 전국 10~18세 아동 및 청소년 900명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후 위기 인식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86%, 성인 84.2%가 “기후 위기 대응 활동에 아동·청소년이 참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기후 위기의 원인·대응 방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절반 정도(51.9%)에 그쳤다. 아동·청소년이 기후 위기 대응 활동에 참여한 경험 또한 2020년과 유사한 수준인 24.2%로 나타났다.

www.seoul.co.kr/news/society/2022/09/26/20220926500086

기후 변화와 아동의 참여

■ 관련 기사 (제목 및 내용 요약)

기후피해 가장 큰 아동, 정책엔 소외

| 한겨레 (2023.05.03.)

• 아동은 기후 변화로부터 큰 피해를 받고 있지만, 정부의 기후 변화대응 정책에서 아동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최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기후 변화가 아동의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정부 정책 수립 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아동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아동은 기후 변화대응을 위해 일상 속 실천을 계속하는 한편, 정부가 아동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90462.html



■ 생각해 보아요 3

① 기사를 읽기 전후로 중요하다고 선택한 키워드가 바뀌었나요? 어떤 키워드로 바뀌었는지 이유와 함께 적어 보세요.



4 제26호 일반논평을 아시나요?



▲ 제26호 일반논평 아동친화버전 국문 번역본 표지



이번 주제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자료야!
읽어보면 회의에 많은
도움이 될 거야

■ 일반논평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들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로 약속하는 중요한 협정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매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 아동 권리가 어떻게 증진되고, 존중되고 있는지 논의하고, 각 나라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권고사항을 만들기도 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또 '일반논평'이란 자료를 만들어 협약 속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다양하게 안내합니다.

2023년 발표된 제26호 일반논평은 아동권이 환경, 그리고 기후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전 세계 아동자문단이 함께 작성한 제26호 일반논평의 아동친화버전입니다.

| 자료 제공 : 아동권리보장원

● 제26호 일반논평 자료 내려받기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링크)

[제26호 일반논평 국문 번역 전문](#)

[제26호 일반논평 아동친화버전 국문 번역 전문](#)

Unite for children's environmental rights

▲ 제26호 일반논평을 안내하는 childrightsenvironment.org

서론

환경 피해는 전 세계적으로 아동권리에 주요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은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그들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환경 피해로부터 아동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은 인권 그 자체이면서 아동이 그들의 권리를 누리는 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일반논평에서는 환경과 기후에 대한 긴급행동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아동의 모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현재대 아동의 권리뿐 아니라 미래세대 아동의 권리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아동의 크나큰 노력이 유엔아동권리 위원회가 이번 일반논평을 작성하게 된 동기가 되었고,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121개국 16,333명의 아동이 일반논평 26호를 위한 아동 자문단과 함께 구성된 자문에서 그들의 생각과 견해를 공유하였습니다. 일반논평에 실린 아동의견들은 이와 같은 자문 과정을 통해 나온 의견에서 발췌^(*) 글 중에서 필요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가려 뽑아내다 하였습니니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논평에 대한 아동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전세계 아동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자문단의 사전적 정의는 "의견을 묻기 위하여 그 방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애니메이션 영상과 포스터 버전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ildrightsenvironment.org

1

인도의 13살 소년

"그분들(어른들)에게 우리는 미래세대라는 점을 말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지구를 파괴하면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하나요?"

아동권리는 환경과 기후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모든 아동의 권리는 연결되어 있으며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권리들은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로 인해 특히 더 위협받고 있습니다. 교육권과 같은 또 다른 권리들은 아동권리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협약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환경 파괴는 원주민 아동, 소수 집단 아동, 장애아동,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등 특정 집단의 아동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집단 간 불평등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모으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가는 환경 문제에 대하여 조치할 때, 그 조치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협약 제3조 아동 최선의 이익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국가는 그러한 결정으로 인해 아동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그리고 현재 자라나는 그리고 미래에 자라날 아동의 안녕(wellbeing) (아무 말 없이 편안함)과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협약 제6조 생명, 생존, 발달의 권리

아동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염이나 납 노출과 같은 환경 피해로 아동의 삶이 위험에 처해서는 안 됩니다.



협약 제12조

존중받을 권리

어른들은 아동의 의견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아동은 환경과 기후변화 관련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가져야 합니다. 국가는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아동이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아동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협약 제13조, 15조

표현의 자유와 결사(여러 사람이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렇게 조직된 단체), 그리고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

아동이 자신의 환경 관련 권리를 주장하는 인권 수호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아동들은 친구들, 그리고 여러 집단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며 정보와 생각을 교류합니다. 국가는 안전하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의견을 표하고자 하는 아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국가는 아동 인권 수호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협약 제13조, 17조

정보에 대한 접근

국가는 아동이 명확하고 정확한 환경 및 기후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여기에는 국가계획과 의사결정에 대한 것, 그리고 아동이 스스로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각기 다른 연령과 배경을 가진 아동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유되어야 합니다.

협약 제19조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환경 피해와 기후변화는 불안정한 상황, 분쟁, 그리고 불평등을 초래하여 아동이 신체적·심리적 폭력으로부터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게 합니다. 국가는 아동을 위한 서비스에 투자하고 이러한 폭력의 근본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아동을 보호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협약 제24조

건강에 대한 권리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기후변화, 환경오염, 건강하지 않은 생태계, 생물다양성 감소로부터 영향 받지 않아야 합니다. 아동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할 경우,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협약 제26조, 27조

사회 보장과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아동은 안전한 음식, 깨끗한 물, 적절한 주거환경 그리고 살아가고 성장 하는데 필요한 여러 요소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아동이 가난하거나 불안정한 환경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협약 제28조, 29조

교육에 대한 권리

아동은 정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환경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 교육은 아동이 환경을 존중하고 환경에 대한 유대감(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는 하나 된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아동이 교육받는 장소는 환경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협약 제30조

원주민 아동과 소수 집단 아동의 권리

원주민 아동과 소수 집단 아동의 삶, 생존과 문화적 관행(오래전부터 해오던 행위)은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아동이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협약 제31조

휴식과 놀이에 대한 권리

아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놀거나 활동할 수 있어야 하고, 자연환경과의 유대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아동이 방문할 수도 있는 새로운 지역사회나 장소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세울 때, 아동이 어디서 어떻게 놀이를 하고 휴식을 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이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동이 자신의 모든 인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깨끗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아동은 깨끗한 공기와 물, 안전한 기후, 건강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건강한 음식,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존 중

법률적 조치에 대한 접근

협력

- 모든 아동이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과감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약속을 지킴으로써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환경에 관한 국가의 의사결정이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혹은 주고 있는지)를 파악(및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아동권리영향평가**를 진행하고,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아동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야 합니다.
- **기업**이 아동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제, 그리고 정책을 만들어 기업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아동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해야 하며, 기업이 그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숨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아동이 **법률적 조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다시 말해, 아동이 경험한 피해와 결과에 대한 해결책, 지원 그리고 보상이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환경 문제는 국경에 제한되지 않으므로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적 협력이 필요 합니다** 환경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책임이 가장 큰 나라와 가장 많은 자원을 가진 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로 인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를 지원해야 합니다.

"지구 온난화와 다른 여러 문제는 전 세계가 협력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어요."

(중국의 11세 소녀)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 아동권리를 고려해야 하며
아동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 기후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켜야 (누그러뜨리거나 약해지도록 하다) 합니다.
지구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한 약속을 지키고,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자들의 의견을 따라야 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적응** 계획, 의사결정 그리고 해결방안을 개발해 나가는데 아동을 포함시켜야 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를 이미 겪고 있는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폭풍우, 홍수와 같은 기상 이변에 버틸 수 있도록 학교 건물과 수도관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고, 긴급 상황이 생기는 경우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아동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손실과 피해**를 겪고 있는 국가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빠르게 줄여나가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독려 (인독하여 격려하다)하여 한 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는 국제적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기업이 아동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기후 관련 재정**이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른들이 그들이 살아가지 않을 미래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을 중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 중심이여야 합니다."

(크로아티아의 17세 소녀)

일반논평

아동권리, 환경 그리고 기후변화

본 자료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문 번역하는 과정에서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국문 번역본 감수 참여 아동위원 길다현, 이시윤, 이연우



Terre des Hommes
International Federation



Copyright Terre des Hommes International Federation, 2023

 <p>1 아동의 정의</p>	 <p>2 차별하지 않기</p>	 <p>3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p>	 <p>4 일상에서 누리는 권리</p>	 <p>5 가족의 역할</p>	 <p>6 생존과 발달</p>	 <p>7 이름과 국적</p>
 <p>8 신분 보호</p>	 <p>9 가족은 늘 함께</p>	 <p>10 다른 나라에 사는 부모님 만나기</p>	 <p>11 납치로부터 보호</p>	 <p>12 아동의 의견 존중</p>	 <p>13 표현의 자유</p>	 <p>14 생각과 종교의 자유</p>
 <p>15 모임 만들고 참여하기</p>	 <p>16 사생활 보호</p>	 <p>17 정보 접근하기</p>	 <p>18 부모의 책임</p>	 <p>19 폭력으로부터 보호</p>	 <p>20 가족이 없는 아동</p>	 <p>21 입양 아동</p>
 <p>22 난민 아동</p>	 <p>23 장애 아동</p>	 <p>24 영양과 건강, 환경</p>	 <p>25 시설 아동 실태 조사</p>	 <p>26 사회 경제적 지원</p>	 <p>27 음식, 옷, 안전한 집</p>	 <p>28 교육</p>
 <p>29 교육의 목적</p>	 <p>30 소수 문화, 언어와 종교</p>	 <p>31 여가, 놀이, 문화, 예술</p>	 <p>32 위험한 노동으로부터 보호</p>	 <p>33 해로운 약물로부터 보호</p>	 <p>34 성 착취로부터 보호</p>	 <p>35 인신매매와 유괴 예방</p>
 <p>36 모든 착취로부터 보호</p>	 <p>37 구금된 아동 보호</p>	 <p>38 전쟁 상황에서 아동 보호</p>	 <p>39 회복과 사회복귀</p>	 <p>40 법을 어긴 아동</p>	 <p>41 아동을 위한 최선의 법</p>	 <p>42 아동권리 알리기</p>
 <p>43-54 협약의 이행</p>	<h1>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h1> <p>유엔아동권리협약</p> <p>unicef for every child</p>					

■ 제21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읽기자료집 ‘기후 변화 우리도 함께 변화해야 할 때’

펴낸날	2024년 5월 15일
펴낸곳	한국아동단체협의회
기획 및 제작	대한민국아동총회 제19·20기 의장단, 한국아동단체협의회
기획 실무	대한민국아동총회 제19·20기 의장단 읽기자료 편집위원회, 아동총회 박진경·윤석빈 TF 위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캐릭터 디자인	대한민국아동총회 제19·20기 의장단 유희주 홍보분과장
